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새정부

9.20(목)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9. 20(목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
담당과장	김현철 과장(044-203-5690)	담 당 자	김보연 사무관(044-203-5695)

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(9.20) 개최

- 김현종 본부장 미중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뉴노멀(New Normal) -

-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쓰나미를 피해나간다 -

- 통상환경 불확실성 제거, 수출동력 유지, 중소·중견기업의 전략시장 진출 지원 강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9. 20.(목) 11시, 대한상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「**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**」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(對) 중국 2,000억 달러 관세부과, 중국의 대(對) 미국 600억 달러 관세부과에 따라 우리 **산업계에 미치는 영향**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**대응방안**을 논의 하고자 개최했다.

* (미→중) 2,000억 달러 5,745개 10% 관세부과('19.1.1일부터 25%로 인상)
* (중→미) 600억 달러 5,207개 5~10% 관세부과(3,571개는 10%, 1,636개는 5%)

○ 그간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,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실물경제대응반을 구성하여 미중 무역분쟁 초기 단계부터 **관련 정보를 공유**하고, **우리 수출·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**하고 **피해기업 지원 등 대책을 강구**해 왔다.

※ 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대책회의」

- 일시/장소 : '18.9.20(목) 11시, 대한상공회의소 Executive룸(1층)
- 참석 :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, 기재부, 외교부, 국무조정실, KOTRA·무역협회·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, 8개 업종별 단체

□ 이번 회의에서 **김현종 본부장**은 **미중간 분쟁이 장기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**하에 민관이 함께 **끊임없는 혁신을 노력**할 것을 강조했다.

○ **중국의 부상을 견제**해야 한다는 미국내 초당적인 지지와 **중국몽(中國夢) 실현을 위한 중국의 의지**를 고려시 **미중간 분쟁상태를 뉴노멀**(New normal)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평가했다.

○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칼의 통상협상은 없으며, **주력산업의 고도화**를 통해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힘들고 **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품목군** 육성을 강조했다.

* 메모리 반도체→시스템 반도체 / LCD→OLED / 화학→배터리 등 고부가화학

○ **참여정부 당시 파주시 액정표시장치(LCD)공장 건립**을 통해 우리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였듯이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**모든 산업에서 혁신과 도전을 일으킬 필요**가 있다고 봤다.

□ 김 본부장은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과 더불어 **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한 당면조치를 철저히 대비**하겠다고 밝혔다.

❶ 통상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것임

- **한미 FTA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**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미국의 **자동차 232조 조사에도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**하여 우리업계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임

❷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동력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

- 수출 호조세를 9월에도 이어나가 월 수출 규모에서 **역대 최초로 연 6회 500억 달러 이상을 달성**하는 한편, 1~9월 수출 누계액과 월중 **일평균 수출규모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**할 있도록 노력

* 1~9월 누계 기준 : 지금까지는 2017년 1~9월 수출이 4,301억불로 최대 기록 (2018.1~8월중 수출은 3,998억불로 1~8월 누계기준 사상 최대)

* 일평균 기준 : 지금까지는 2017.10월이 24.9억불로 최대 기록(cf. 2018.8월은 21.3억불)

- 올해 **수출 6천억 달러 달성**을 위하여 기 마련된 무역금융·수출마케팅 등 지원책을 착실히 이행하고, **수출업계 애로를 최우선으로 해결**

❸ **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남방, 신북방,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겠음**

-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 확충이외 우리 기업들이 현지 유통망을 잡을 수 있도록 **신흥시장의 유통·물류망 접근을 위한 지원**을 본격 추진하고, **우리 유통·물류업체들의 해외진출**도 적극 지원

* 중국의 알리바바는 동남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라자다를 인수('16.4), 말레이시아 세관과 협력하여 e-Free Trade Zone 구축('18.7)

- 해외시장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**적극적인 인수합병(M&A)을** 지원하고, 테마섹 등 국부펀드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

< 업종별 동향 및 대응 >

□ 오늘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는 각 산업별 기업들과 **긴밀히 소통**하여 **국내 및 해외 현지 투자기업**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 각 산업별 영향, 대응방안 및 정부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.

○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번 상호관세 부과조치에도 대중·대미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,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**국제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수요가 감소**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함

< 주요 업종별 영향 및 대응방안 >

업종	영향 및 대응방향
반도체	▸ 주 수요품목인 PC, 스마트폰이 관세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나, 세계 전자제품의 40-50%를 생산하는 중국의 투자위축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감소 가능성을 우려 ▸ 중국 현지 투자기업이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D램모듈은 금번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, 생산 전환 등을 통해 대응
디스플레이	▸ 최대 수요품목인 LCD TV, 노트북, 모바일 기기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對中수출에 영향이 거의 없음 ▸ 현지 우리 투자기업의 생산 물량 대부분도 중국 내수向
가전/ 정보기기	▸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일부 중간재(컴퓨터 스피커·프린터 부품 등)의 대중 수출감소가 예상 * 대중 정보기기 부분품 수출 : '17년 6억불(전체 대중수출의 0.4%) ▸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 생산하는 냉장고, 에어컨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현지진출기업의 대미수출 감소 우려

업종	영향 및 대응방향
자동차·부품	▸ 중국을 경유한 대미 자동차 수출이 없고, 부품 수출도 현지 완성차 납품용이 대부분으로 영향이 미미 * 중국의 완성차 대미수출 대부분은 해외브랜드 계열사간 거래이며 수출량도 많지 않음(6만대) ▸ 중장기적으로 중국내 소비둔화시 자동차 수요감소가 우려
철강	▸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판재류(냉연·도금강판 등, 관세부과대상에는 제외)는 중국내 자동차 산업 등 내수용으로 사용되어 영향이 미미 * 철강제재품목(주단강, 봉형강)은 우리 주력품목(냉연, 도금 등, 전체 對中 수출물량의 85%이상이 현지진출기업 소재용)과 비경쟁관계로 영향 미미 ▸ 현지투자기업 생산량 대부분이 중국내수용 ▸ 다만, 미중간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내 자동차·건설경기 하강시 장기적으로 수출감소 가능성
기계	▸ 미·중 현지 진출기업 생산 대부분이 각국 내수용이고, 주요 한국 제품과 중국제품은 비경합구조로 직접적·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▸ 중장기적으로 중국 등 설비투자 위축 우려
석유화학	▸ 관세부과에 포함된 플라스틱 가공제품, 합성섬유, 고무 등 석유화학 수요제품들의 경우, 생산에 사용되는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원료 비중(2~10%)이 낮아 영향 미미 ▸ 현지진출기업의 생산도 대부분 내수용
섬유	▸ 섬유소재가 제재 대상(의류 완제품 제외)이나 의류 생산기지가 동남아로 급속히 이전하는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 ▸ 일부 섬유소재는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대미 수출 증가 기대 (대미 섬유류 수출의 73%가 섬유소재)

< 향후계획 >

□ 앞으로 정부는 수출점검회의(9.12, 통상교섭본부장 주재)시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**수출기업 지원방안*이 원활히 시행**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

* 무역보험 한도우대(1.5배), 보험금 가지급(최대 80%) 등
* 수출상담회·사절단(59회), 전시회(21회) 등을 신흥시장 중심으로 추진

○ 향후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발호에도 수출동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.

□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는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수출구조 고도화·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**수출마케팅 등 지원**을 강화하기로 했다.

*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및 지방지원단, 무역협회 TradeSOS의 애로접수 창구 운영 중

○ 향후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**중국 소비재*·서비스 시장** 진출 가속화, **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**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* 11.5~10, 중국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에 우리기업 300여개사 참여 지원

□ 무역보험공사도 **수출이행자금 지원, 보험금 조기지급** 등으로 **피해 확산 방지**를 지원하기로 했다.

○ 특히, 인도·인니·러시아 등 전략 신흥시장 수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증액하여 수출다변화를 지원한다.

□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된 **업종별 영향을 상세 분석**하고, 피해기업 지원 등에 대한 무역보험, 수출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**영향 및 피해를 최소**해나갈 계획이며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현지 유통망 접근성 제고 등 신남방·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.